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교수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고유의 상징적인 정책들을 펼친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엔 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 시대정신과 시대 과제는 다르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한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지방 분권, 성 평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것은 시대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과제는 될 수 있지만 시대정신은 아니다.

둘째, 방향·방법·속도의 세 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방법이 잘못되거나 투박하면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방향과 방법이 조화를 이뤄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잘못된 방식에 기대어 과속으로 추진하면 실패하기 쉽다.

셋째,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대응력이 뛰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입안-결정-집행-평가'라는 4단계를 거친다. 정책을 입안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종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권력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한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원인을 잡아내 빠르게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대응력이다. 통상 대응력이 떨어지면 정책의 적시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평가해 보면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시대성은 있지만 조화성과 대응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방향성은 긍정 사회 구축이라는 시대정신과 부합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이라는 3대 쇼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청와대 정책 참모들의 현실 인식이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정책 집행의 속도를 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한 만큼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은 과거 보수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다. 정책은 좋은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잘못된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470.5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에서 쓴 예산은 약 43조 원에 달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는 8년6개월 만에 최소치인 5000명(전년 대비)만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조업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사라졌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적이 최상의 정책이다.

종교칼럼



조진무  
피아골피정집 관장 신부

올 여름의 폭염은 재난과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태풍 '솔릭'은 예고보다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호남 지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폭염과 가뭄, 태풍 등 기후의 영향으로 9월에는 농수산물 파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 영세민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가난한 이들이 겪을 애라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후의 변화와 생태계 교란을 더 자주 체감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자연환경과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또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과의 공생, 상생의 가치가 더 절실해집니다.

'생태적 회개(悔改)'가 절실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프란치스코 교종(教宗)의 중요한 회칙(回勅)이 발표되었는데, 바로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의 회칙입니다.

회칙이란, 교종이 세계의 천주교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칙서와 같은 공식문서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천주교회 회칙의 역사상 환경 문제를 최초로 다룬 회칙입니다.

현대 시대에 가장 큰 화두인 전(全) 지구적 생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영성과 실천에 관한 입장을 서술한 것이지요. 그 회칙에서 교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교종의 표현으로 '공동의 집')에서 오염과 버리는 문화, 기후 문제, 물 문제, 생명 다양성의 감소 등으로 인해 무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인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다룹니다.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일상 생활의 생태론을 공동선과 세대 간 정의에 입각한 통합 생태론으로서 제시하면

서, 여러 차원의 대화를 통한 접근법과 행동 방식, 생태 교육과 영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인간에 의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피조물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모든 신자가 형제요 자매인 피조물들을 위해서 '회개'하자는 의미로 회칙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회개는 하느님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에게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4대강 사업, 강산의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핵 발전소 문제 등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태적 조건이 망가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히 자연 환경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간 환경의 차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분열과 대립, 미용

과 이기심 등의 모습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만들어 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생태적 회개'가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3년 전부터 생태적 회개를 통해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투신하자고 요청하면서,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어느 하루를 택하여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여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급년에 광주 대교구에서는 모든 단체와 성당에서 9월 1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날은 특별히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상생, 공생의 관계에 관해 함께 깨닫게 되고 또 자연의 질서와 순리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와 신봉과 민족을 떠나 최근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의 위기를 함께 겪었던, 그리고 십중팔구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를 함께 겪어가게 될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생태적 회개'가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요?

기고



남진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맛의 방주와 전통주

고려시대의 이규보나 조선시대의 김시습, 서거정, 정철을 필두로 한 많은 문인들이 술을 자신의 사편속에 담고 있다.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살해당하던 날에도 만취되어 있었으며 죽어서도 차마 술을 잊지 못해 조선 성종때의 학자 순호순의 꿈에 나타나 술을 청해 마셨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다. 우리나라 전통주의 명맥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1909년 주세법을 공포하면서 주류 제조 허가를 받은 양조장 이외의 주막이나 가정에서의 주류 제조를 금지하면서 끊어졌다. 해방 이후 부족한 식량 사정으로 인해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의 제조가 금지되면서 전통주의 명맥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구마, 당밀 등을 원료로 생산한 알콜 원액을 물에 타 제조한 희석식 소주가 주류를 이루었다. 희석식 소주는 술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증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화학주조 맛과 향으로 전통주를 따라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과하게 마시면 다음날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술로 이름을 얻은 지역으로는 진도의 홍주, 안동의 소주, 포천의 막걸리, 한산의 소곡주를 꼽을 수 있다. 술을 문화 자산으로 삼은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술 마을이나 양조장들이 지역 음식과 버무려져 관광 자원이 되고 축제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11년 문화 수출 프로젝트인 '쿨 재팬'(Cool Japan)을 통해 일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2013년 12월 음식 문화로는 네 번째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일식을 등재하였다. 2012년 일본을 대표하는 술로 사케를 선정하고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사케 양조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해외 고급 레스토랑 및 백화점 관계자를 초청 사케 시음회를 개최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케 축제도 많은데 일례로 설곡의 고향으로 유명한 일본 니가타현에서는 스시, 온천, 사케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월 사케 축제인 "사케 노진"을 개최하며 지역내 96개 양조장들이 최고의 사케를 출품하는 이틀간의 축제 기간 동안 매년 15만 명이 방문한다. 일본의 사케와 중국의 마오타이주 등 백주는 고급 술의 이미지를 구축해 2016

년 통계로 사케는 1억 4361만 달러, 백주는 4억 6789만 달러를 수출했다. 반면 막걸리 등 우리나라 전통주는 1823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1년 588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573만 달러, 2015년 1915만 달러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술 소비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엄급 고급 술시장만 성장하고 있다. 취하는 술에서 문화와 관광을 즐기는 술 문화로 바뀐에 따라 술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음식과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대기업을 넘어 대량 생산한 술 제품은 감소 추세이고 프랑스의 보르도처럼 지역에 밀착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술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음식과 술은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남도 음식은 호남의 맛과 한과 정성을 보여주는 세계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이며 실제로 맛과 인식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에서 지역 전통주나 맛의 방주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도 음식과 술의 세계화, 고급화는 최우선 당면 과제이다.

社說

'한국 수목' 미래 문화 브랜드로 세계화해야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오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1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비엔날레의 무대는 수목화의 진수인 '남중화'의 본고장인 진도와 목포 일원이다. 수목비엔날레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수목 관련 미술 행사로 지난해 프레비엔날레로 선을 보인 후 올해 본격적인 대중화에 나섰다.

수목은 그동안 미술 분야에서 폐쇄된 장르로 인식돼 갈수록 잊혀지면서 대중들과도 멀어져 왔다. 오죽했으면 참가자를 맡은 김상철 씨가 한국 수목의 입지를 '꽃병술의 꽃'에 비유하며 '원로는 있는데 젊은이가 없는 현실'이라고 했을까.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가 추구하는 방향도 한국 수목의 대중화와 브랜드화일 수밖에 없다.

그 첫걸음은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 주는 '정명 운동'이다. 서양에 '인디언 잉크'와 '차이니스 잉크'로 소개된 수목의 독특함을 반영해 수목('Sumuk')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비엔날레의 대상도 수목화뿐만 아니라 수목을 이용

한 설치미술 등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았다.

수목비엔날레의 개최 의미는 김상철 총감독의 말처럼 수평에 빠진 수목을 고집어내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키워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포와 진도 6개 전시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작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15개국 271명의 작가가 참여한 만큼 체류형 작품 제작 전시(레지던시)를 비롯해 볼거리가 다양하다. 목포 갯바위미술관이나 진도 윤림산방을 가본 직접 수목화를 그려볼 수 있고 수목을 소재로 한 공연 관람과 수목 포토존 등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수목비엔날레의 주제는 '오늘의 수목-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이다. 주제가 지향하는 바는 과거를 통해 수목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한마디로 수목은 미래의 문화 브랜드로 세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화전당과 5월단체의 손배소 해결책 없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이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11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5월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구상권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11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전당 측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당 측은 전당 건립 공사를 맡은 대립산업 등 4개 업체에 지난 2016년 1월 110억 원을 물어 주었다. 이 금액은 5월 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공사 현장을 점거, 농성을 벌인 데 따른 공사 지연 피해액이다. 전당 측의 가장 큰 고민은 손배배상 청구 소송 대상자가 5월 단체와 그 회원들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인 별관 존

치는 물론 옛 전남 도청의 원형 복원까지 약속함에 따라 전당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문화전당과 5월 단체의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애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과 시민 단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들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소송이라는 극한 상황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 주길 바라고 있다. 문화전당이 손배소를 제기한다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無等鼓

최근 국내 대부분 신문은 미국 공화당의 정치 거목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의 삶과 정치 역정을 았다튀 주요 기사로 다뤘다. 고인이 된 매케인은 지난해 7월에도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뇌암 투병 중에도 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소신과 어긋나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다. 출석 당시 보인 왼쪽 눈 위의 선명한 수술 자국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언론이 다른 나라인 미국의 정치인을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정도와 품격을 갖춘 정치인이 매우 드물

정치인의 뒷모습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계가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외 정치인들의 부음을 접하면서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이 떠오른다. 그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광주법정에서 세계 의원단'으로 나섰음에도, 그는 '저런 잘못을 밝히는 게 미국의 가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를 실천했던 매케인의 죽음은 노회찬 의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노 의원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았다며 스스로 단죄했다. 국민은 "수억 원을 드시고도 명명거리며 사는 인간들이 술인데, 왜 하필 노회찬이냐"며 안타까워했다. 그가 국민의 애도 속에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늘 서민들과 함께 했던 정치인이자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감동적이었던, 지난 2012년 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도 담겨 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투명인간인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자문한 그는 "이제 이분들이 뱀새말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계가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외 정치인들의 부음을 접하면서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이 떠오른다. 그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광주법정에서 세계 의원단'으로 나섰음에도, 그는 '저런 잘못을 밝히는 게 미국의 가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를 실천했던 매케인의 죽음은 노회찬 의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노 의원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특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